

형식적 캠페인... 안전교육도 '빈익빈 부익부'

스쿨존 어린이 생명을 지키자

〈중〉 실효 없는 대책 한계
광주 안전교육시설 2곳 뿐
소규모 유치원 교육료 부담
'어른 눈높이' 교육 개선 필요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9명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명이 번을 당한 전남지역도 올 상반기에만 벌써 5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교통전문가들은 "교육시스템 중 유독 어린이가 교통사고 대책이 후진국형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광주·전남도, 광주·전남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형식적 캠페인에 그치는 데다 '어른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광주의 최근 3년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465건, 2016년 478건, 올해 상반기(1~6월) 20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매년 1명씩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가족 품을 떠났다. 부상도 ▲2015년 564명 ▲2016년 594명 ▲2017년 상반기 244명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경우 어린이보호



12일 광주시 남구 봉선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역(스쿨존) 내에서 같은 기간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도 73명에 달한다는 데 있다.

전남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 649건(사망 5명·부상 850명)에서 2015년 641건(사망 7명·부상 848명), 2016년 564건(사망 5명·부상 726명), 올 6월 현재 310건(사망 5명·부상 407명) 등 지난 4년간 교통사고로 22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교통 전문가와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체험형 교통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는 각종 이유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시에

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의 경우 조기마감 등을 이유로, 유료시설의 경우엔 예산 등을 핑계로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에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어린이교통공원과 지난 2015년 북구 우치공원 내에 문을 연 드라이빙스쿨 등 2 곳이다.

무료인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해 유치원 등 700개 기관에서 어린이 6만8178명이 교육을 받았다. 다만, 매년 학기초에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이용이 쉽지 않은 데다, 시설 노후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광주 우치공원 내 드라이빙스쿨은 실내시설로, 아이들이 직접 전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유료(1인

6000~1만5000원) 탓에 지난해 기준 70여개 어린이집에서 4500여명이 다녀가는 데 그쳤다.

해당시설이 유료이다 보니, 비교적 운영 예산에 여유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기업체 산하 어린이집, 대형 사립유치원 등에서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 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등을 떠나 무료인 어린이교통공원은 예약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면서 "최신 시설을 갖춘 유료시설을 이용하면 교육효과가 높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없는 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4 해질 23:48
해짐 18:43 달짐 13:11

일교차 개요
일교차 크고 전국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7/28	보성	맑음	15/26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7/28
여수	맑음	19/28	영광	맑음	15/26
나주	맑음	14/28	진도	맑음	18/27
완도	맑음	18/28	전주	맑음	15/27
구례	맑음	14/27	군산	맑음	16/26
강진	맑음	16/28	남원	맑음	13/27
해남	맑음	15/28	축산도	맑음	20/24
장성	맑음	14/26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북동	1.5~2.5	북~북동	1.0~2.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파부질한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02	06:54
	--:--	19:45
여수	07:34	01:15
	20:22	14:19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15/28	17/28	17/27	18/27	18/28	18/27	18/27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

3~4단계 1749명 의료비·간병비 등 지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미인정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47명으로 이 가운데 7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만큼 미인정 피해자도 구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는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제외),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경찰 '노인 맞춤형 치안대책' 시행

치매노인 사전등록, 위치확인 단말기 지급 등

전남경찰이 노인 맞춤형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은 전국 유일의 초고령 사회로, 노인 관련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노인(60세 초과) 대상 강간·추행 사건은 22건으로, 전년 33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폭력사건은 756건에 이르고, 절도는 655건, 사기는 427건이나 발생했다. 또 가정폭력은 76건, 보이스피싱 피해사건도 14

건에 이른다. 전남경찰은 우선 지역별로 노인 맞춤형 단력순찰을 하기로 했으며,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교통 교육 강화와 교통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노인 급증에 따른 노인 실종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확인 단말기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노인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위기 노인'으로 선정하고, 방문 상담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 및 노인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노인안전 종합 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월 점검회의를 하고 추진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류미진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노인안전 종합 치안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은 물론 노인 안전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앞 식품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설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5명이 투입되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 이뤄진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와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마음의 병' 앓는 광주 소방공무원

119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 호소...市, 심리상담 지원

광주지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 119명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치료 필요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2일 "이 지역 소방공무원 1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7월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명이 치료 필요군으로 분류돼 심리상담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정신의학회 정신건강질문 진단 설문지'(DSM-4, DSM-5)를 통해 진행됐고 치료필요군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5명, 우울증은 19명으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이 조사를 통해 치료 필요군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 등이 광주지역 3개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심리상담사가 직접 안전센터에 찾아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062-5 31-3530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사망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28	18
	국제한국어교육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7. 9. 11(월)~15(금) • 전형일: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7. 12. 30(토)~2018. 1. 2(화) • 전형일: 2018. 1. 9(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